

먼지가 된 韓·中 공동대응... 서울시, 5년 허송세월?

2002년 76 $\mu\text{g}/\text{m}^3$ → 작년 40 $\mu\text{g}/\text{m}^3$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줄고있다”
 시민들 “중국에 항의해야” 목소리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4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에서 이들 연속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지난 4년간 베이징시와 추진해온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력이 성과없는 치적 쌓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베이징시와 2014년부터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지난해 서울시 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내 초미세먼지(PM2.5)는 대기질 오염 측정을 시작한 지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17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현정 기자

2002년 40 $\mu\text{g}/\text{m}^3$ 에서 2017년 25 $\mu\text{g}/\text{m}^3$, 지난해에는 23 $\mu\text{g}/\text{m}^3$ 까지 줄었다. 미세먼지(PM10)는 2002년 76 $\mu\text{g}/\text{m}^3$ 에서 2017년 44 $\mu\text{g}/\text{m}^3$ 로, 2018년에는 40 $\mu\text{g}/\text{m}^3$ 로 줄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해온 국내·외 대기질 개선 사업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

내고 있다. 직장인 임모(29) 씨는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 거다”면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미세먼지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중국에나 항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원지인 중국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는 2014년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공동합

의문’을 발표하면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양 도시 간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중국에 ▲CNG 버스 보급 ▲공공차량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저녹스버너 보급 ▲도로분진 흡입차량 시험 운행 등의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2015년에는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력 전담조직인 ‘환경팀’을 서울-베이징 통합 위원회 내에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어 2016년부터 몽골에 나무를 심어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는 ‘미래를 가꾸는 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몽골 아르갈란트 숲 내 60ha 규모의 땅에 총 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몽골 지역 내 나무의 평균 생존율이 50% 내외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자동화 관수시스템을 도입해 생존율 71% 수준으로 나무를 관리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몽골에 100ha에 나무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2017년에는 중국·일본·몽골의 주요 도시와 대기질 문제 해법을 찾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대기 오염 방지 포럼 협력 7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7회 등을 실시했다.

그동안 중국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이 논의에만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또 양 도시에 고정 연락관을 두고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는 ‘미세먼지 핫라인’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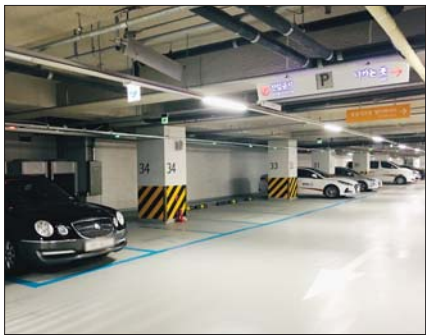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베이징시 등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기질 개선과 같은 환경 문제는 시민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연희뉴스

“한국서 살기 어려워... 이민 가야하나”

미세먼지가 바꾼 생활상

서울시, 공공주차장 434곳 폐쇄
 “마스크 해도 목·눈 아파... 도로 피난”



14일 오전 시청사 지하 4층 주차장은 제법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을 폐쇄하고 출입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김현정 기자

14일 서울시와 수도권에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날 오전 시청역 일대로 출근하는 시민의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가 없는 이들은 ‘쿨쿨쿨’ 마른기침을 해대며 목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난 김모(68) 씨는 “일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먼 소재로 만들어진 검은색 마스크를 내렸다. 그에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며 “어디서 파냐”고 되물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직장인 정모(52) 씨가 “약국에서 달라고 하면 준다”면서 “마스크 포장지에 ‘K’라고 쓰여 있는 거”라며 본인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가리켰다.

시청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40) 씨는 “오늘 마스크가 엄청 많이 팔리진 않았다”며 “오전에만 6개 정도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많이 팔렸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사다가 몇 박스씩 쟁여놓고 쓴다”며 “약국에서 많이 사가는 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지하 4층 주차장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을 폐쇄하고 출입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이날 시청 지하 주차장 관리실에는 3명의 단속요원이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오늘 차 가지고 나오셨냐”고 물으니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고 왔다”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청 직원뿐

만 아니라 우리도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다”고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지금 여기 있는 차들은 관용차, 언론사 취재 차량, 택배 차,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차뿐”이라고 덧붙였다.

청계3가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윤모(35) 씨는 “마스크를 써도 목이랑 눈이 아프다”며 “친인척은 이번엔 오키나와로 피난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쌍둥이가 있는 윤 씨는 “애들이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다”며 “한국에 살기 점점 어려워진다. 캐나다로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 중이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날 경기도 서북부 일대에서는 야외 훈련과 숙영이 강행됐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제보건기구의 50 $\mu\text{g}/\text{m}^3$ 과 25 $\mu\text{g}/\text{m}^3$ 을 크게 넘긴 206 $\mu\text{g}/\text{m}^3$ 과 173 $\mu\text{g}/\text{m}^3$ 이었다.

육군의 초미세먼지 예보기준에 따르면 ‘매우 나쁨’ 농도 이상의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야외훈련을 실내교육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일선의 한 지휘관은 “사실상 조정은 힘들다. 상급지휘관들이 부대훈련 주기 등을 검토하겠지만, 강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날씨에 공기청정기를 갖춘 실내에 계신 상급지휘관들이 미세먼지와 함께 잠을 청하는 부하들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삼한사미... ‘클린가전’ 불티

(三寒四微: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

G마켓·옥션·위메프

의류관리기·공기청정기 매출 급증
 청정+온풍 ‘4계절 기능’ 제품 출시

예전에는 겨울 날씨를 이야기할 때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말 그대로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라는 뜻이다. 한국 겨울날씨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삼한사미(三寒四微)’가 겨울 날씨를 나타내는 대표 용어로 자리잡았다. 3일간 춥고, 춥지않은 4일동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다는 의미다. 삼한사미가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14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는 280만명에 달한다.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약 1000배나 높다고 경고한 만큼, 외부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를 ‘클린가전’으로 관리하려는 소비자들 늘고 있다.

◆의류관리기·공기청정기, 이제는 필수가전! 때를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한겨울에도 난방용품보다 ‘클린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의 최근 한달(2018년 12월 14일~2019년 1월 13일) 기준, 전년 동기대비 판매 성장률을



삼성전자 스타일러(왼쪽)와제로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각사

살펴보면, 가스난로와 온수매트가 각각 31%, 42% 성장한 반면, 의류관리기와 공기청정기는 각각 109%, 53% 성장했다.

옥션의 클린가전 판매 성장률(2018년 12월 14일~2019년 1월 13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공기청정기는 35%, 의류관리기인 스타일러는 69%나 판매량이 늘었다. 스타일러는 냄새 입자를 없애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유해세균까지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안감케어 옷걸이로 안감면지를 털어주고, 미세먼지 필터로 털어낸 먼지까지 제거해 주어 옷은 물론 제품 내부까지 더욱 청정하게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세균제거가 가능

한 살균소독기(손소독기)는 105%, 미세먼지를 방지해주는 황사 마스크는 89% 성장률을 보였다.

위메프에 따르면, 3년 전(2015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는 437배(43641%) 판매량이 증가했고, 공기청정기는 6배(511%) 이상 늘었다.

◆기능은 더하고, 무게와 부피는 줄이고 공기청정기가 필수가전으로 탈바꿈하면서 기존에 없던 기능이 더해진 공기청정기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롯데닷컴 가전셀의 박지원 MD는 “건조한 겨울에 가습효과도 누릴 수 있게 습식으로 공기를 정화해주는 에어워셔류부터 최근엔 공기청정 기능에 온풍 기능까지 결합된 신상품이 출시되는 등 다른 기능과 합쳐진 복합제품이 눈에 띄고 있다”며 “봄·가을 뿐 아니라 사시사철 사용하기 좋도록 기능이 추가된 제품은 앞으로 더 많이 출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 나온 ‘다이스너 퓨어 핫앤콜 링크’ 공기청정기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만 겨울엔 온풍으로 난방까지 책임져주는 똑똑한 제품이다. 대용량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1가구 1공기청정기 시대에서 각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두는 1방 1공기청정기 시대로 바뀌면서 작고 가벼워지는 슬림화 경향도 보여진다.

/신선 기자 tree6834@

野 “文, 책임부인 中에 반박 못해”

>> 1번 ‘미세먼지 30% 감축...’서 계속

김 수석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

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

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개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는 중국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승준 기자 dn114@